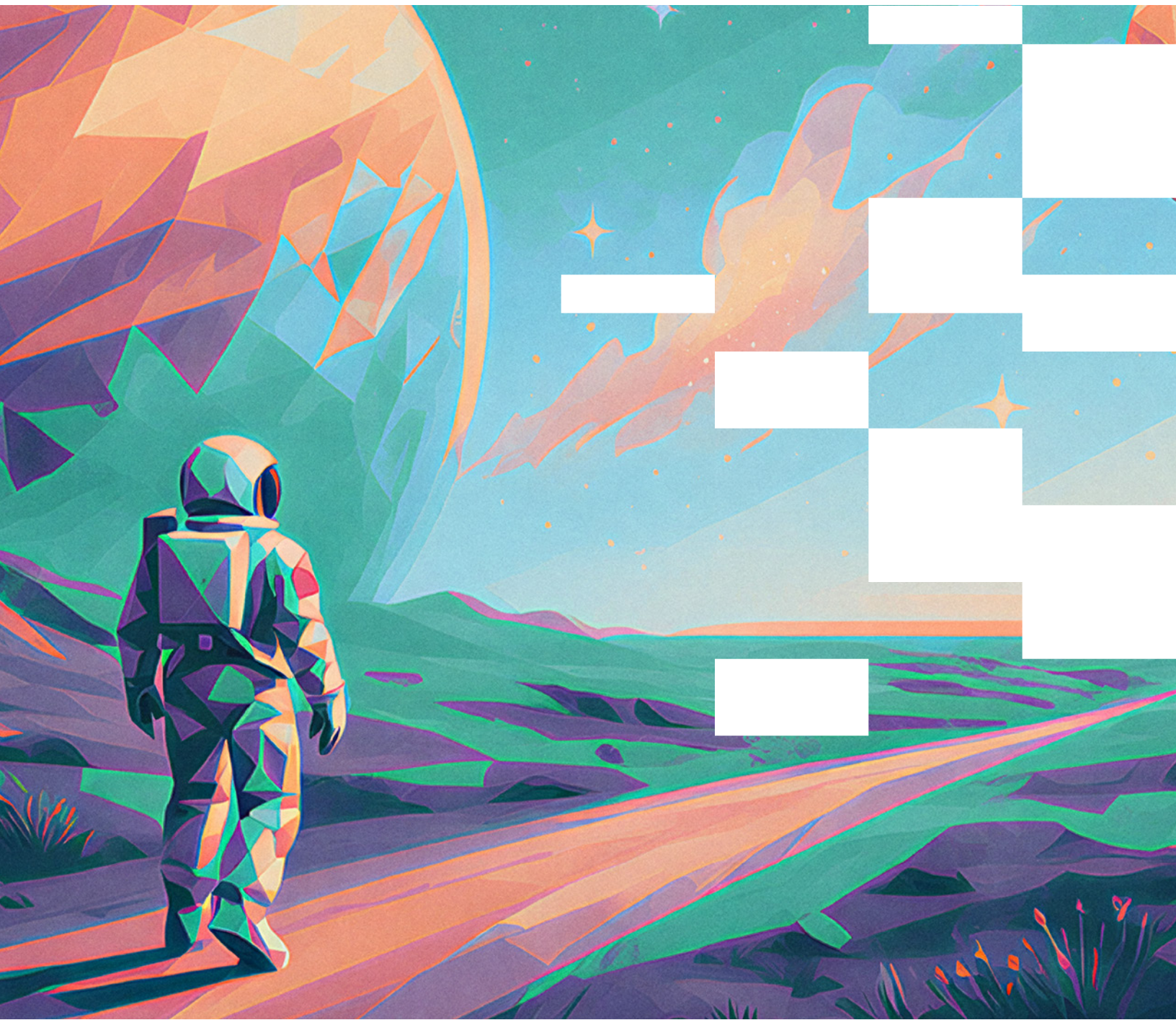


2026 보고서

옴저버빌리티 전망



2년 연속, 옴저버빌리티 수요를 추진하는 가장 큰 동인은 AI

조직들은 AI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중단 없이 더 빠르게 실행해주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톨 통합, 장애 비용, 에이전틱 옴저버빌리티 등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는 다른 모든 요소들은 이제 우선순위가 밀려났습니다.

AI는 양날의 검입니다. 팀들이 더 많은 코드를 배포하고, 인시던트를 더 빠르게 해결하며, 긴급 대응에 허비되던 엔지니어링 시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사람이 검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코드를 생성하고, 자율 에이전트를 운영 환경에 투입하며, 파악하기 더 어려운 계층을 스택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유령 속도(phantom velocity)* 현상을 야기합니다. 초기 단계의 생산성 향상이 뒤이어 발생하는 시스템 다운타임, 긴급 장애 대응, 사후 수습 작업으로 인해 소리 소문 없이 유령처럼 상쇄되는 현상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승리하는 조직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옴저버빌리티를 유지하여 런타임 안정성을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진짜 개발 속도를 확보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의 1,700명보다 많은 2,575명의 엔지니어링 및 IT 리더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의 답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 구축 속도를 높였지만, 실행은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옴저버빌리티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는 계층입니다.

조사방식

뉴렐릭은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리서치(ETR)와 협력하여 다양한 산업, 조직 규모 및 지역에 걸쳐 2,575명의 IT 및 엔지니어링 리더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는 임원, 관리자 및 실무자 역할을 아우릅니다. 특정 세그먼트가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수치는 전체 응답자를 반영합니다.



주요 결과

오피버빌리티의 가장 큰 동인인 AI

AI 애플리케이션, 에이전틱 시스템, 보안 위험이 오피버빌리티 수요를 정의하면서, 모니터링의 초점이 업타임에서 AI 안정성 및 거버넌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피버빌리티 도입의 3대 동인

AI 애플리케이션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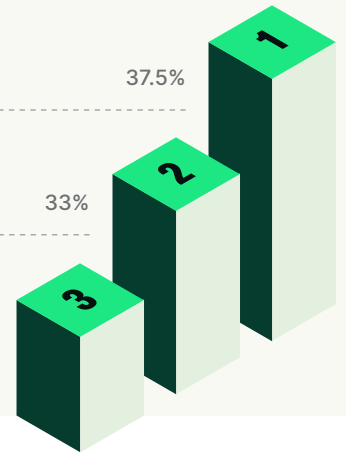
37.5%

보안 및 거버넌스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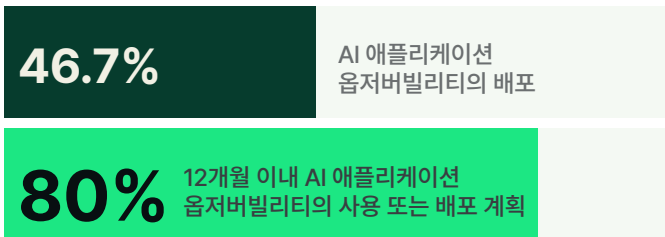
에이전틱 AI 시스템의 도입

32%



표준 관행으로 자리 잡은 AI 오피버빌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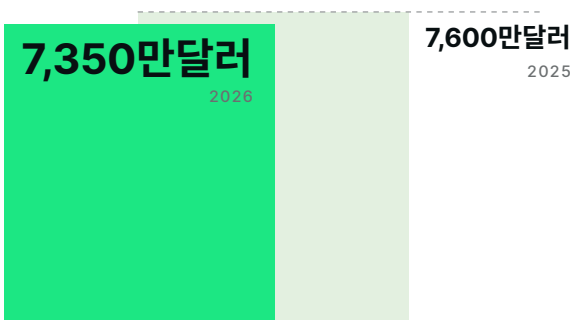
AI 오피버빌리티는 실험 단계에서 기본적인 요구 사항으로 빠르게 이동했으며,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도입률이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단 비용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위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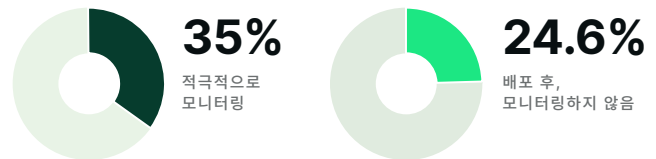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서비스 중단 빈도가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지 및 해결 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시던트당 재정적 피해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간 고영향 서비스 중단 비용



4개 AI 에이전트 중 1개는 전혀 모니터링되지 않은 상태로 실행됩니다.

실시간 텔레메트리 없이 코드, 설정 또는 인프라를 변경하는 자율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완화되어야 하는 운영 위험입니다.



AI로 생성된 코드에 오피버빌리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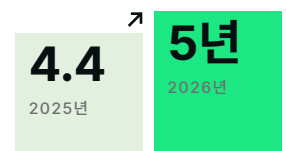
대다수(82.6%)가 AI로 생성된 코드의 증가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오피버빌리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동의했으며, 35.2%는 강력히 동의했고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5.2%).



다시 고개를 드는 무분별한 툴 확장

새로운 AI 워크로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용 오피버빌리티 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년간 힘들게 공들여온 플랫폼 통합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피버빌리티 툴 수



AI는 새로운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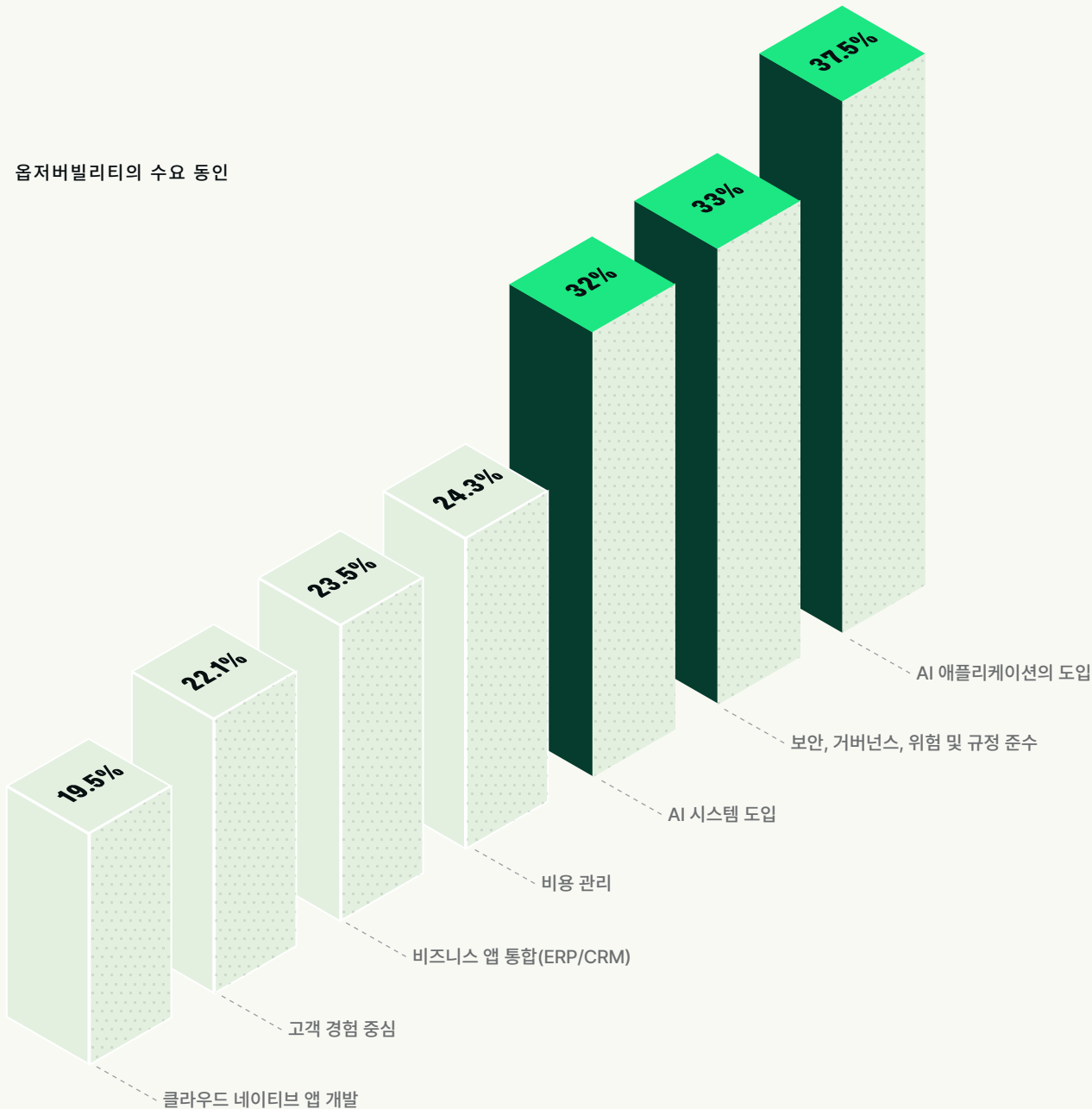


오피서빌리티의 발전을 견인하는 AI

AI 전략이 비용 관리 같은 기존의 우선순위를 밀어내고 오피서빌리티 투자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어, 조직은 이에 적응해야 합니다.

AI 배포를 확장하면 시스템이 새로운 공격 경로와 예측하기 어려운 종량제 기반 워크로드에 노출됩니다. 오피서빌리티는 조직이 AI 보안 위험과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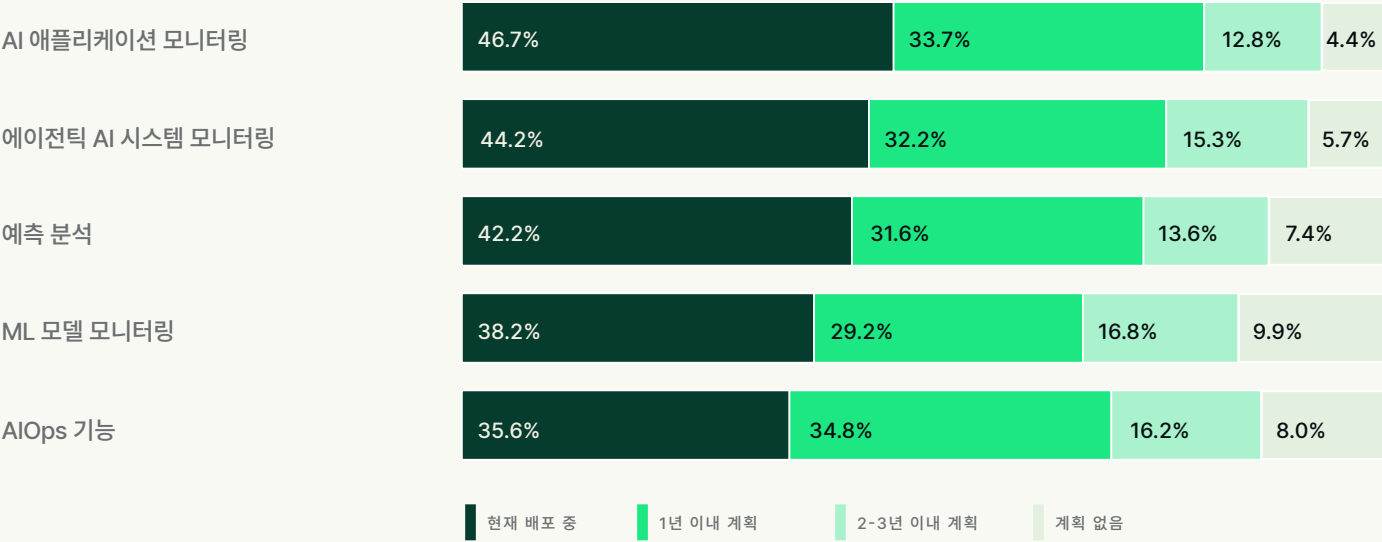
오피서빌리티의 주요 동인



AI 모니터링 그 이상

뉴렐릭의 설문조사는 AI 옹저버빌리티의 5가지 범주를 다루었으며, AI가 일상화됨에 따라 각 범주별로 적절한 배포 전략이 요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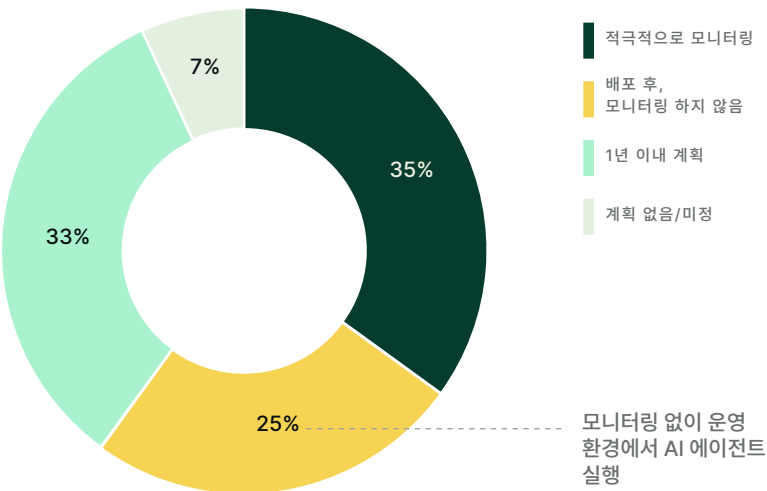
AI 옹저버빌리티의 5가지 유형



에이전틱 AI의 가시성 간극

자율 에이전트가 운영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조직의 4분의 1은 모니터링이나 런타임에 대한 가시성 없이 이 기술을 배포하여 주요 운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이전틱 모니터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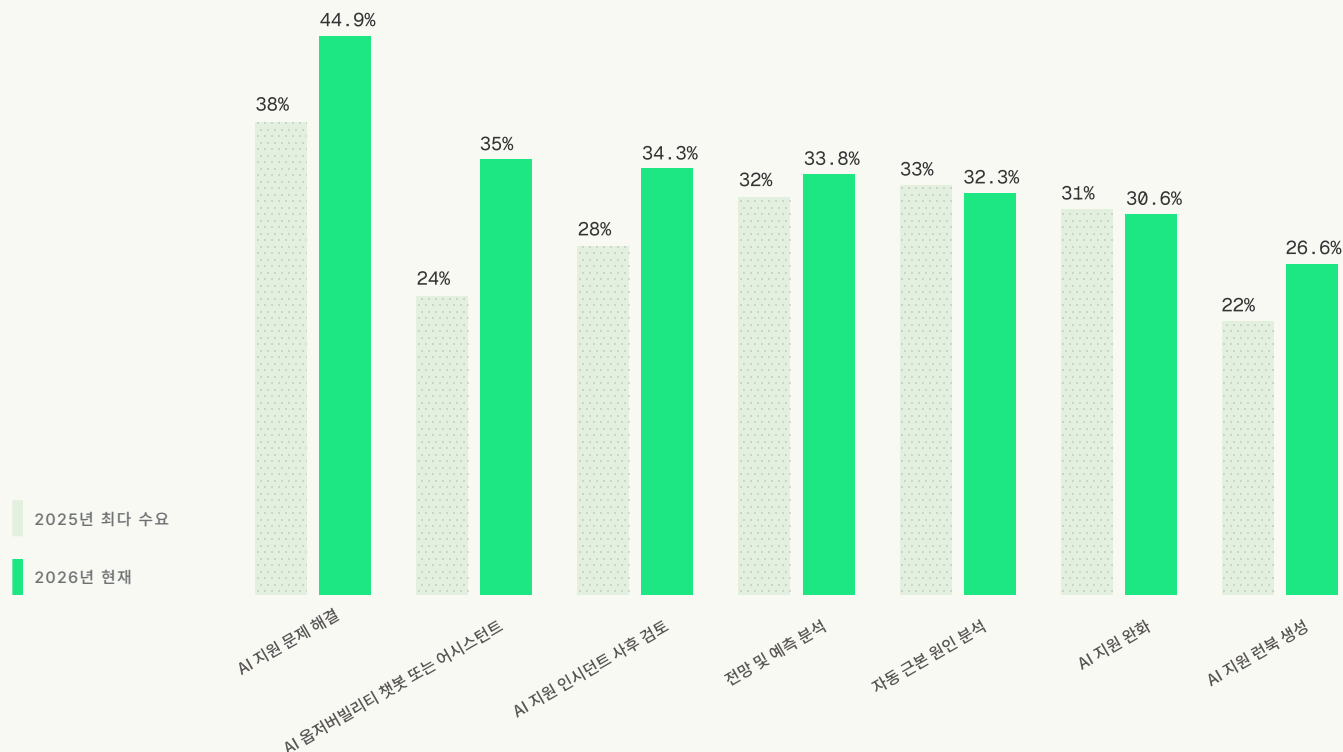
가시성이 없이는 통제 불가

93%의 조직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했지만, 24.6%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코드, 설정, 또는 인프라를 변경하는 것은 고객이 장애를 발견할 때까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운영 환경에 도달한 AI 인시던트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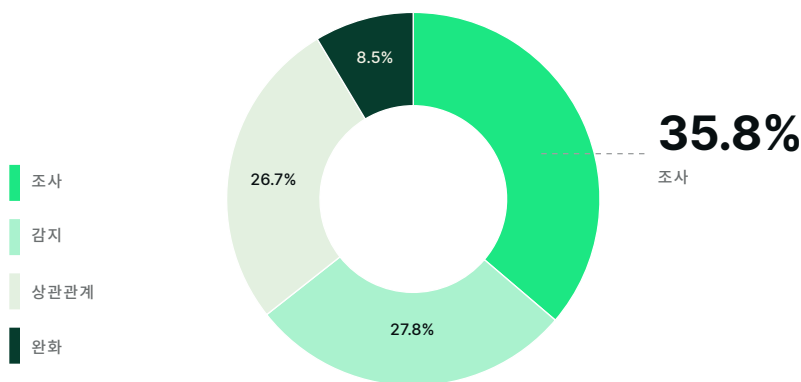
조직들이 1년 전에 염원하던 AI 인시던트 툴을 적극 배포하면서, 2025년의 목표는 2026년 운영 환경의 기본 표준이 되었습니다.

AI 문제 해결이 44.9%로 적극적인 도입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화형 어시스턴트는 24%에서 35%로 급증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의 6.1%만이 AI 인시던트 툴 없이 운영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장 큰 역량을 발휘하는 AI

AI는 조사 과정에서 가장 높은 운영 가치를 제공하며(35.8%), 지난한 수동 탐지 작업을 빠르고 집중적인 근본 원인 분석으로 대체합니다.



플랫폼 텔레메트리 사용 중

뉴렐릭 플랫폼 사용 데이터에 따르면 AI는 장애 패턴을 조기에 표출해 발견 단계를 단축하고, 엔지니어링 팀의 역할을 원인 규명 작업에서 가이드 기반의 문제 해결로 전환시킵니다.

[AI 영향 보고서를 확인해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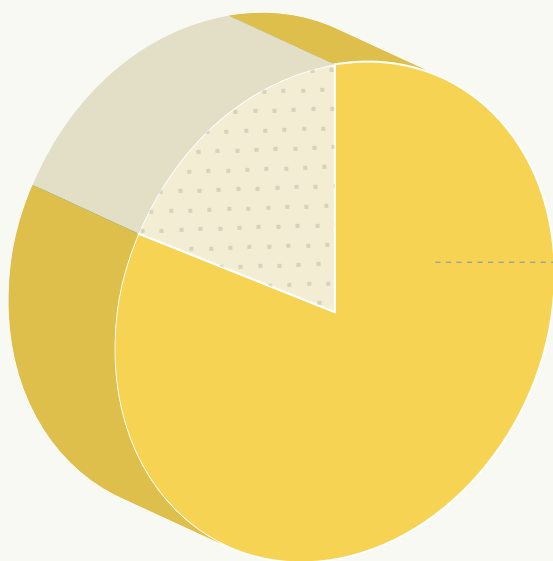
AI로 생성된 코드의 대가



대부분의 코드가 AI로 작성됨에 따라 변화하는 옴저버빌리티의 역할

최근 발표된 뉴렐릭의 AI 코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조직의 3분의 2가 코드의 절반 이상을 AI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94%는 검토 단계에서 AI 코드의 품질을 더 높게 평가하지만, 배포된 후의 결과는 다릅니다. 78%는 운영 인시던트가 증가했다고 말했으며, 86%는 시니어 엔지니어가 코드를 수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AI 코딩 툴은 소스를 읽지만 트레이스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코드만 보고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다면, 실시간 런타임에서 증명된 데이터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82.6%의 리더들은 강력한 옴저버빌리티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AI 코드에 옴저버빌리티가 중요하다고 답한 리더

82.6%

AI로 생성된 코드로 인해 강력한 옴저버빌리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동의 또는 강력히 동의함

개발자 벤치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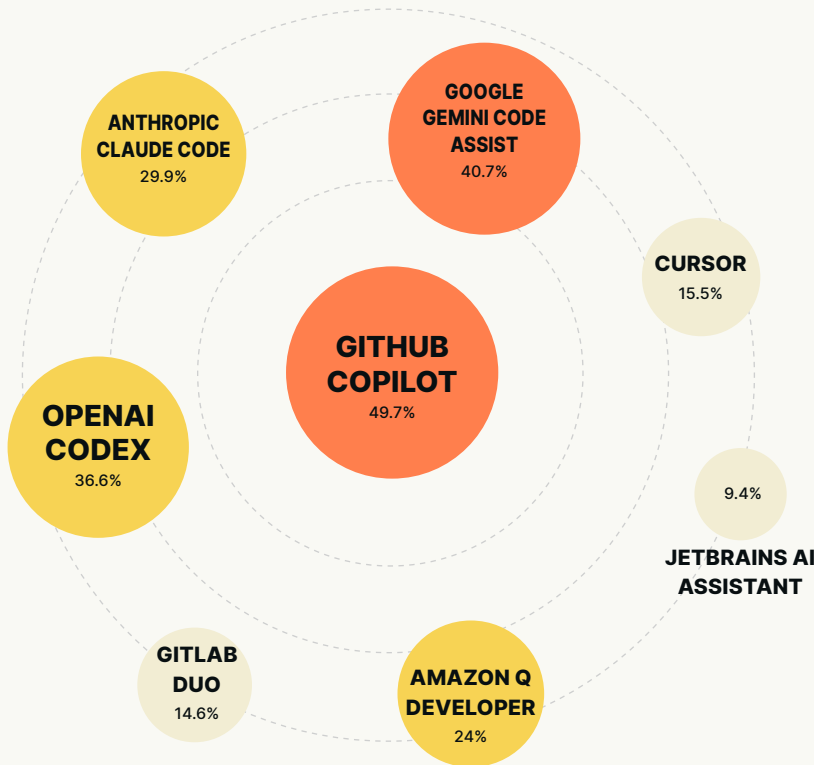


운영의 역설: 뉴렐릭의 AI 코딩 현황 보고서를 보면 운영 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발 팀의 62%가 코드 줄을 모두 하나씩 확인하지 않은 채 AI가 생성한 코드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코드는 초기의 정적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운영 환경의 트래픽을 마주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런타임 예외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AI 코딩 현황 보고서 보기](#) →

더 많은 코딩 툴로 인해 오피버빌리티의 필요성 증가

AI가 생성한 코드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툴체인이 얼마나 포화 상태인지 보면 됩니다. 현재 조직들 사이에서 어떤 AI 코딩 또는 코드 생성 툴을 사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매우 긴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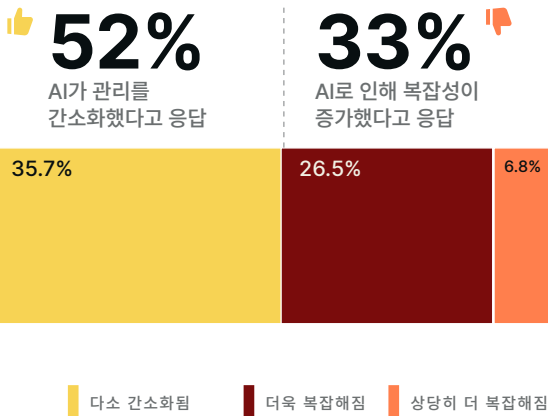
조직의 거의 절반에서 사용되는 GitHub Copilot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Gemini Code Assist와 Codex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AI 코딩 툴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조직은 2.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여러 개의 툴을 동시에 실행하며, 이는 오피버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툴은 여러 다른 규칙을 사용하는 다양한 엔지니어의 프롬프트에 따라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 결과물은 다른 모든 요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운영 환경에 배포되고, 동일한 서비스 수준 계약을 따르며, 동일한 장애 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Copilot, Cursor, Codex 및 Claude Code로 구성된 코드베이스는 단일 작성자나 단일 스타일이 없는 코드베이스입니다. 너무 많은 코드가 너무 많은 다양한 프롬프트에 의해 너무 빠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소스를 읽는 것은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런타임 증거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신호가 되며, 오피버빌리티는 바로 이 신호를 포착합니다.

AI가 스택 복잡성을 양방향으로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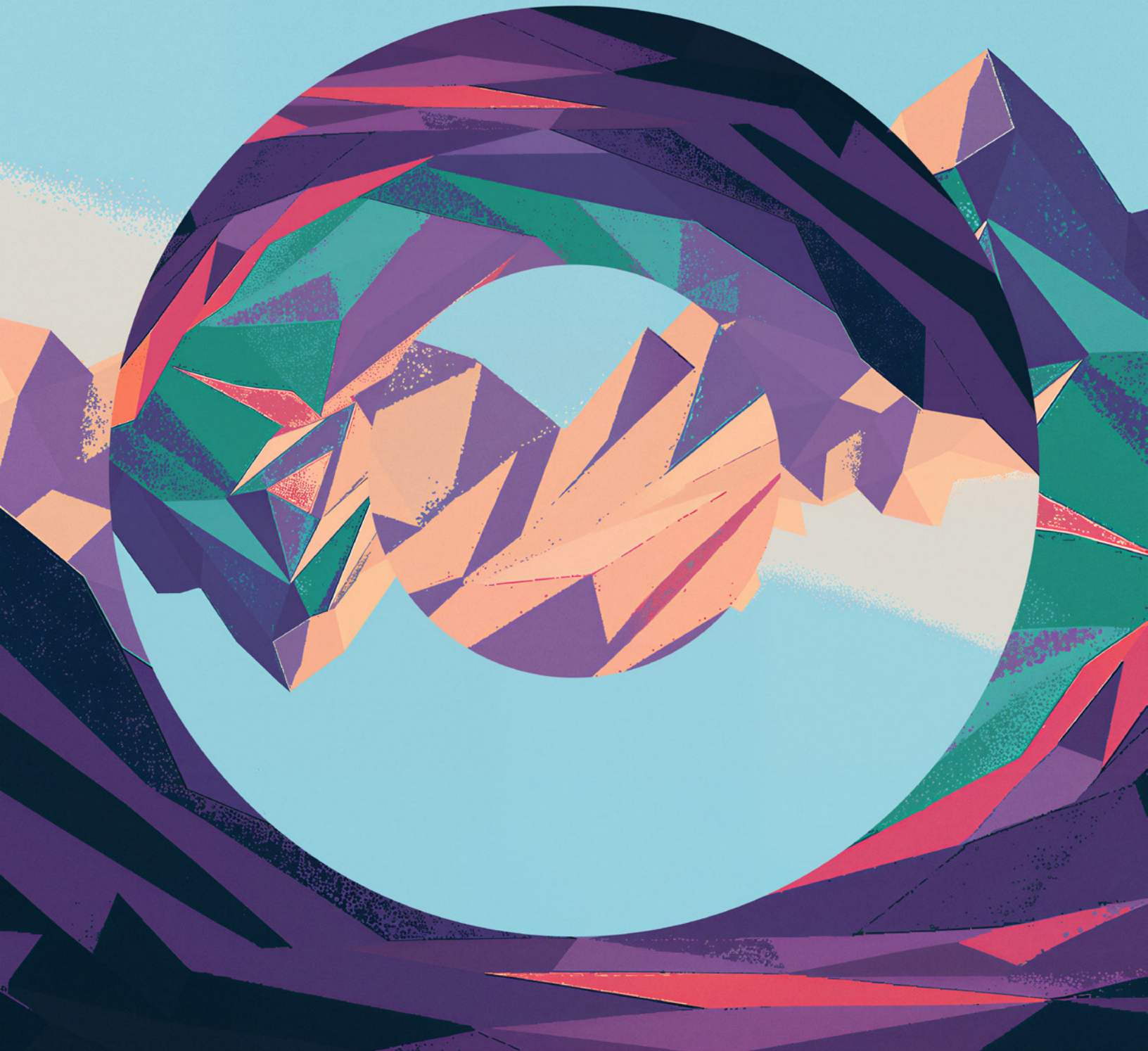
AI가 전체 운영을 간소화하지는 않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스택 관리의 복잡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이 엇갈렸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코딩 현황 보고서에서 언급한 상충 관계를 운영의 관점에서 본 데서 기인합니다. 속도를 향상하는 비용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뢰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AI는 대다수 팀의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주지만, 적지 않은 수의 조직에는 오히려 불투명성이라는 부작용을 안겨줍니다. 결국 기업이 어느 쪽에 속하게 될지는 AI가 수행하는 작업을 얼마나 명확히 시각화하고 관측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5% 영향이 없다고 응답

AI 기반 코드를 모니터링 가능하게 만드는 OpenTeleme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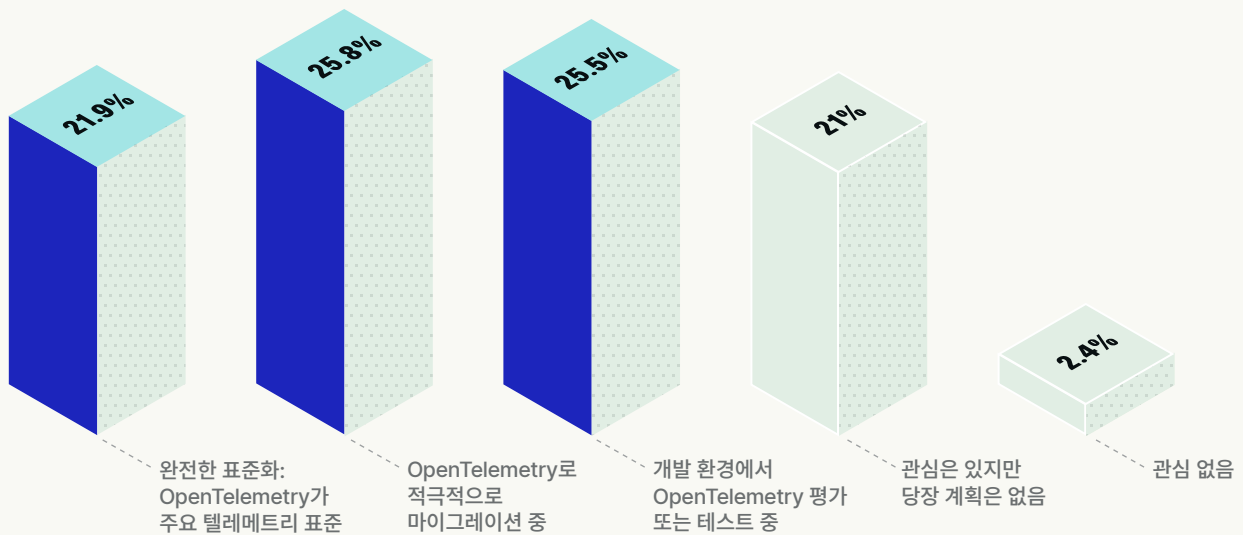


단편화된 AI 툴체인을 표준화하는 OpenTelemetry

Copilot, Cursor, Codex, Claude Code, 맞춤형 프롬프트를 통해 코드가 생성되면, 그 결과로 생성되는 텔레메트리는 종종 호환되지 않는 형식으로 단편화됩니다. 공유되는 표준이 없으면, 여러 다른 AI 툴 전반에서 인시던트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운영 상 마찰이 발생합니다. OpenTelemetry는 다수의 엔진 코드베이스 전반에서 메트릭, 이벤트, 로그 및 트레이스를 상호 연관시키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OpenTelemetry의 도입 가속화

운영 환경 전반에서 OpenTelemetry를 향한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리더들이 오픈버빌리티 스택 전반에 걸쳐 벤더 이식성을 요구함에 따라, 이제 오픈소스 호환성은 내부 표준화를 넘어 필수적인 구매 기준이 되었습니다.



AI 프롬프트에 포함되는 텔레메트리



뉴렐릭의 AI 코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팀의 78%가 AI 툴로 코드를 생성할 때 특정 텔레메트리를 넣어 달라고 프롬프트에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penTelemetry 시맨틱 규칙과 구조화된 로그를 기반으로 표준화해야, AI 출력 결과가 운영 환경에 도달하기 전에 가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읽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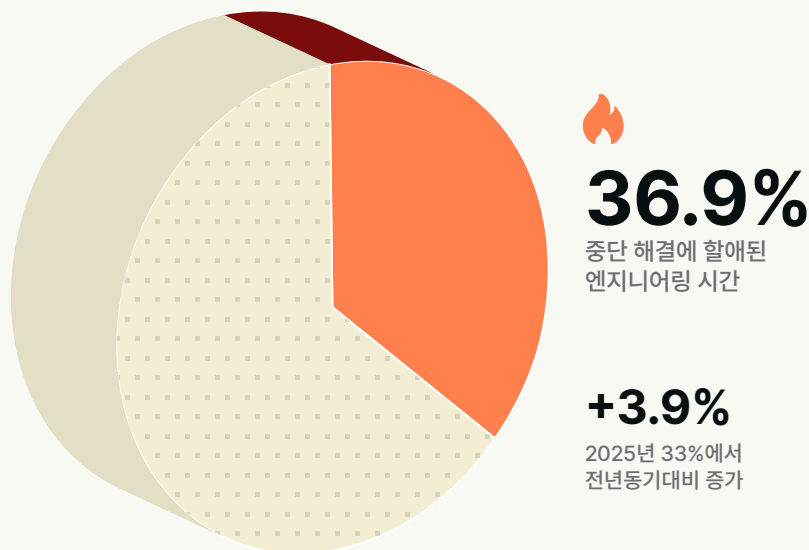
AI로 강화된 옴저버빌리티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



혁신이 아니라 장애 대응에 더 많은 시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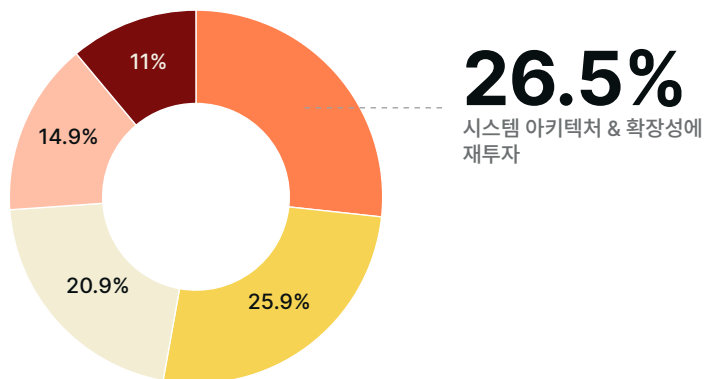
현재 엔지니어링 역량의 3분의 1 이상이 시스템 장애로 대응에 소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엔지니어는 제품 개발 및 배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로 강화된 옴저버빌리티는 이러한 부정적인 추세를 역전시켜 낭비되던 시간을 혁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전환해줍니다.

AI 코딩 툴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팀은 긴급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런타임 가시성 없이 AI 코드 개발 속도만 높이면 사후 대응 작업의 부담이 커집니다.



확보한 시간이 사용되는 곳

확보된 엔지니어링 시간은 불필요한 회의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 소요되던 시간을 되찾으면, 리더들은 이를 플랫폼 복원력과 제품 배포 속도를 높이는데 재투자합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및 확장성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기능 기술 부채 교육

경영진의 견해:

혁신의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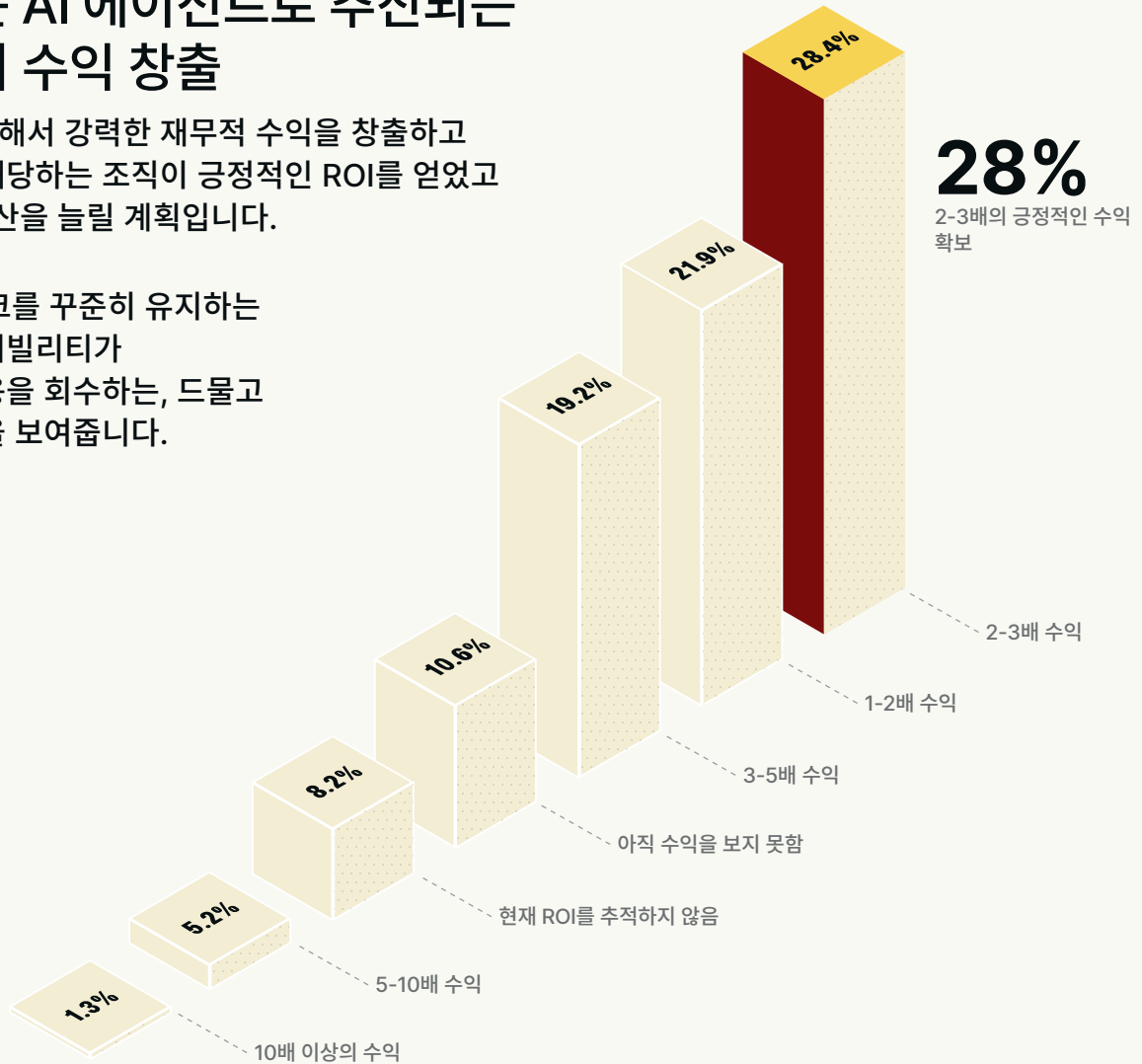
뉴렐릭 플랫폼 사용 데이터(AI 영향 보고서 발췌)는 AI 기반 옴저버빌리티가 문제 해결 단계를 단축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컨텍스트와 장애 패턴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팀은 수동적인 원인 조사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해결 작업에 집중할 수 있으며, 아키텍처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읽기 →](#)

모니터링되는 AI 에이전트로 추진되는 오피버빌리티 수익 창출

오피버빌리티는 계속해서 강력한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4분의 3에 해당하는 조직이 긍정적인 ROI를 얻었고 향후 12개월 동안 예산을 늘릴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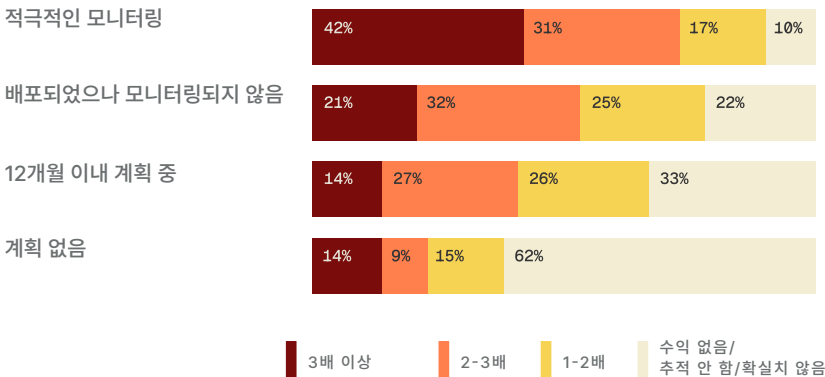
작년의 75% 벤치마크를 꾸준히 유지하는 이러한 성과는 오피버빌리티가 지속적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드물고 매우 타당한 투자임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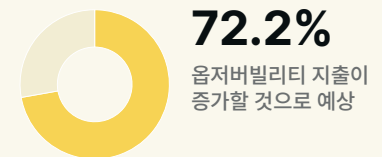
에이전트 가시성 확보의 효과

에이전트 모니터링 여부에 따라 재무적 수익이 크게 엇갈립니다. 운영 환경에서 AI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조직은 중요한 운영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오피버빌리티 투자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에이전트 모니터링 성숙도별 오피버빌리티 ROI



예산 동향



기술 리더들은 AI로 강화된 오피버빌리티의 입증된 ROI에 맞춰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가시성을 AI 및 비즈니스 성과와 연결

옵저버빌리티는 백엔드 디버깅 유틸리티에서 비즈니스 성과의 핵심 동인으로 진화했습니다. 인시던트 비용을 정량화하는 것은 여전히 기본적인 요구 사항(51%)이지만, AI 실행을 위한 런타임 가시성(45%)은 기존의 우선순위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조직이 AI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출시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미 옵저버빌리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I 전략과 옵저버빌리티 전략은 공식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옵저버빌리티

인시던트의 비즈니스 영향 정량화	51.1%
고객 경험 향상	48.8%
서비스 중단 및 비즈니스 위험 완화	48.5%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조치로 전환	45.7%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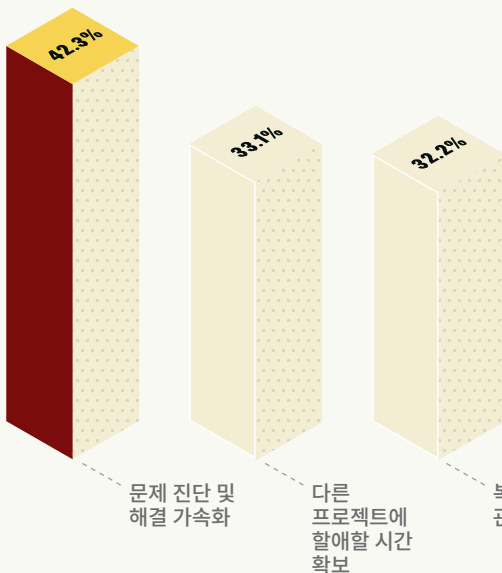
가장 빠른 상승 ↗

팀과 리더에게 제공되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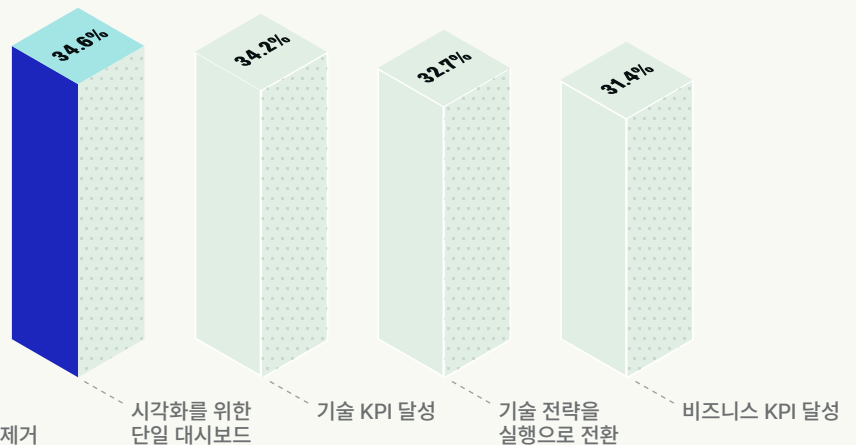
AI로 강화된 옵저버빌리티의 이점은 여러 계층에 걸쳐 있어, 엔지니어와 리더 모두가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무자



임원 & 관리자



운영 중단
비용은 감소,
위험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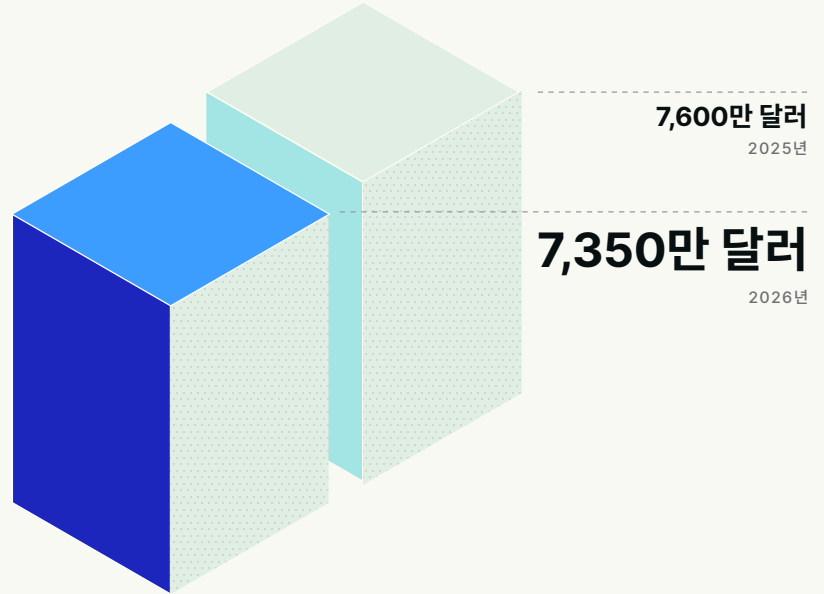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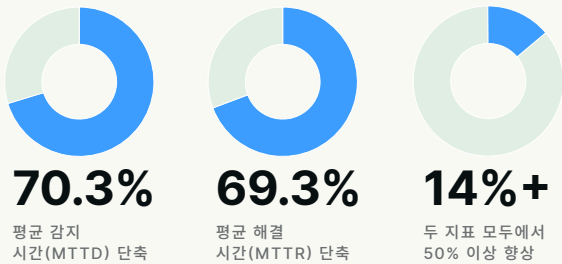
연간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실

다운타임 비용의 감소는 장애 발생 건수 자체가 줄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응 속도가 빨라진 덕분입니다. 장애 감지 및 해결 시간을 단축하면 모든 개별 장애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 비용이 감소한 이유는 시스템 장애가 더 드물게 일어나서가 아니라, 개발 팀이 장애를 더 빠르게 잡아내고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영향이 큰 운영 중단의 연간 비용

실제로 응답자들은 심각한 비즈니스 장애로 인해 시간당 평균 185만 달러(한화 약 25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분당 3만 달러가 넘는 재무적 손실입니다.

응답 시간 향상



여전히 빈번한 운영 중단

복구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근본적인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이 큰 중단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의 4분의 1 이상이 매주 또는 그보다 더 자주 중대한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200%나 증가했습니다.

하루에 수차례

9.2%

하루에 한 번

7.5%

일주일당 2-6회

12%

일주일당 한 번

7.5%

한 달에 2-3회

11%

한 달에 한 번 이하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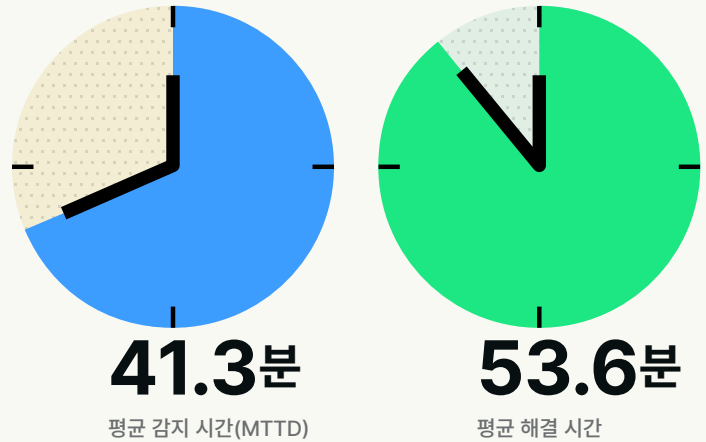
전혀 없음

14.9%

영향력이 큰 중단 발생 빈도

탐지 및 해결에 여전히 소요되는 시간

영향이 큰 운영 중단은 경우, 평균 감지 시간은 41.3분, 평균 해결 시간은 53.6분입니다. 중앙값은 각각 35분과 51분으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운영이 중단된 1분 1초마다 수익과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며, 엔지니어는 개발 대신 복구에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7,350만 달러에 상응하는 위험이며, 옴저버빌리티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에 옴저버빌리티가 더 중요한 이유

지난 한 해는 그 위험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단일 AWS 리전에서 발생한 장애는 완전히 해결하는데 15시간이 걸렸고,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1,700만 건 이상의 중단이 야기되었으며, Snapchat, Reddit, Coinbase, Venmo, 항공과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CNBC, Ookla). 동일한 이벤트로 인해 옴저버빌리티와 인시던트 대응 공급업체 자체에도 차질이 생겨, 팀이 대응할 때 의존하는 알림이 지연되었습니다(IncidentHub). 9일 후, Microsoft의 Azure Front Door 내부의 설정 변경으로 인해 9시간 동안 전 세계적인 중단이 발생하여 Microsoft 365, Xbox 및 Azure 포털이 타격을 입었으며, 손실액은 48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Network World, ThousandEyes). 그로부터 3주 후, Cloudflare 장애로 인해 X, ChatGPT, Spotify 및 Discord가 마비되었습니다(NY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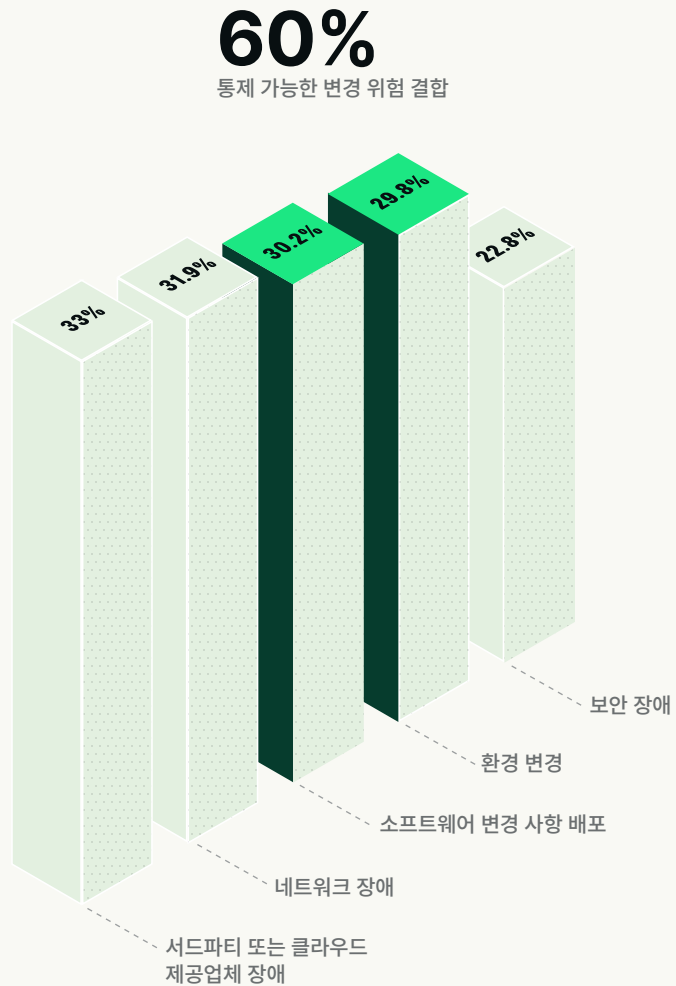
패턴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중단 사태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의존하는 공유 인프라 내부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업스트림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팀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문제를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우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지 및 해결 시간을 단축한 조직은 비용 곡선을 하향세로 전환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조직들은 비용이 치솟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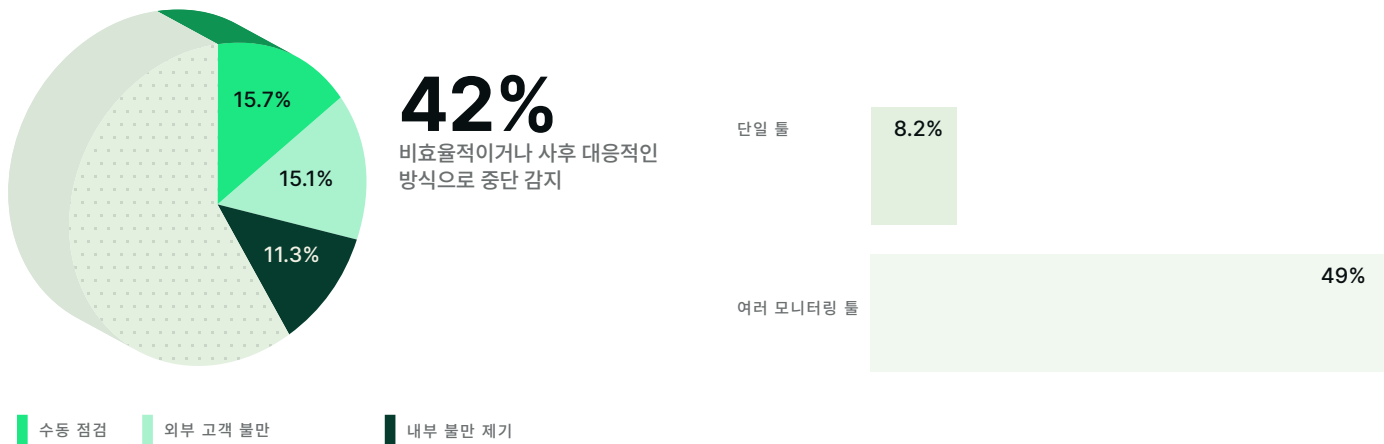
여전히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

업스트림의 클라우드 장애가 주요 원인이지만, 배포 및 환경 변경도 도합 60%를 차지합니다. 이는 AI 시대에 경종을 울립니다. 더 많은 툴에서 더 많은 코드가 더 자주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 가능한 장애 모드는 가장 중요하게 주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팀의 거의 절반이 여전히 사후 대응적으로 인시던트 감지

오피버빌리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이 여전히 수동 점검, 고객 신고 또는 내부 불만을 통해 중단 사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관행은 복구력이 뛰어난 조직과 사후 대응에 급급한 조직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만듭니다.



통합의 필수 요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무분별한 툴 확장

지난 2년 동안의 화두는 통합이었습니다. 조직의 평균 옴저버빌리티 툴 수는 2024년 6개에서 2025년 4.4개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추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조직은 약 5개의 옴저버빌리티 툴을 운영합니다.

유력한 원인은 AI 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애플리케이션, 에이전트, 모델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면서,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새로운 AI 전용 포인트 툴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옴저버빌리티의 수요를 촉발한 바로 그 동력이, 역설적으로 옴저버빌리티의 무분별한 확산까지 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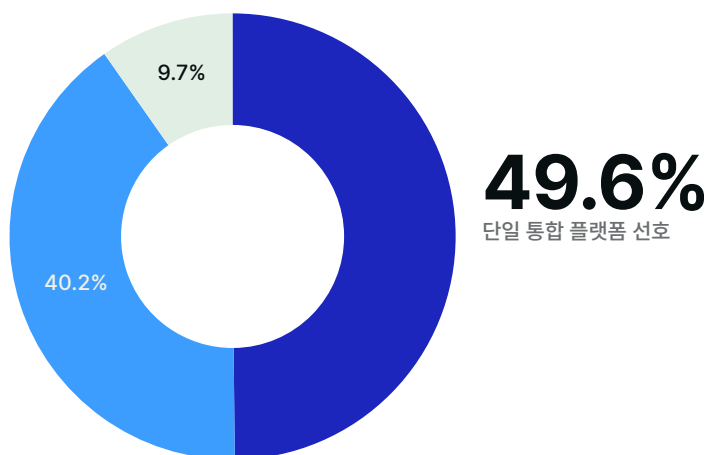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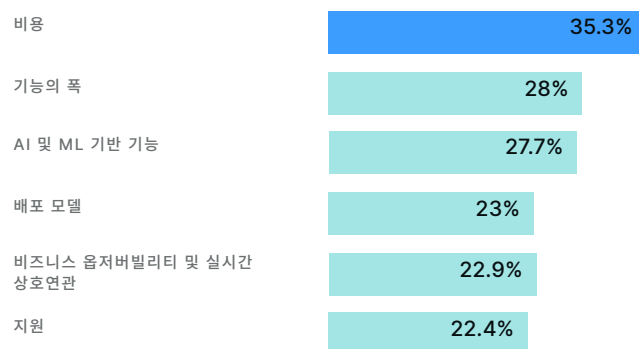


근소한 차이로 여전히 우세한 통합

조직들은 여전히 통합된 접근 방식을 선호하지만, 툴 수의 반전이 시사하는 것만큼 그 선호도가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절반(49.6%)은 단일 통합 플랫폼을 선호하는 반면, 40.2%는 여러 포인트 솔루션을 선호하고 9.7%는 특별히 선호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포인트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실재하며, 이는 AI 툴의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통합하는 조직은 새로운 AI 기능마다 새로운 대시보드를 추가하는 것을 지양하는 조직일 것입니다.

구매자의 우선순위

엔지니어링 팀이 점점 더 엄격한 예산 심사를 받게 되면서, 옴저버빌리티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 비용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했습니다. 동시에 AI와 머신러닝 기능이 구매 기준 상위 3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과 비용 통제 효과를 모두 얻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일 통합 플랫폼

다수 포인트 솔루션

선호도 없음

2026년과 그 이후의 전략적 과제

출시 전에 에이전트를 포함한 AI 계층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조직(24.6%)이 운영 환경에서 모니터링 없이 AI 에이전트를 실행하고 있는 반면, 68%는 이미 모니터링하고 있거나 12개월 이내에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2026년의 중요한 기준은 AI 시스템이 가동되는 순간부터 옹저버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에이전트가 인시던트를 발생시킨 후에 옹저버빌리티를 추가하면 너무 늦습니다.

운영 텔레메트리를 AI 개발의 주요 입력 데이터로 활용

향후 2년 동안 가장 중요한 옹저버빌리티 관행은 런타임 데이터와 코드 생성 간의 루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82.6%의 리더들은 이미 AI로 생성된 코드가 옹저버빌리티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운영 환경에서 드러난 내용을 다음 프롬프트, 다음 검토, 다음 배포에 다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 툴로 인해 텔레메트리가 단편화되기 전에 OpenTelemetry로 표준화

Copilot, Cursor, Codex, Claude Code 등에서 코드가 생성되면, OpenTelemetry는 이러한 툴들이 방출하는 텔레메트리를 상호 연관시킬 수 있도록 일관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조직이 이미 표준화, 마이그레이션 또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AI 툴에 OpenTelemetry 규칙을 프롬프트로 요청하는 조직은 내일 AI가 생성한 시스템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I 툴이 스택을 다시 단편화하기 전에 통합

평균 툴 수는 단 1년 만에 약 4개에서 약 5개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루어낸 툴 통합의 성과들이 AI 전용 포인트 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툴을 추가하지 않고도 새로운 AI 기능을 수용하는 통합 플랫폼이야말로 복잡성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AI 도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AIOps 도입으로 사후 대응적인 업무를 혁신 성과로 전환

엔지니어링 시간의 평균 37%가 여전히 장애 처리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AIOps를 배포한 조직은 35.6%에 불과하며, 34.8%는 1년 이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팀이 확보한 시간을 아키텍처, 보안 및 새로운 기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런타임과 개발 간의 루프를 완성하여 유령 속도 제거

AI를 통해 팀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제어되지 않은 속도는 런타임 안정성에 숨겨진 부담을 초래합니다. 유령 속도는 빠른 개발을 통해 얻은 이점들이 시스템 다운타임, 긴급 패치, 그리고 장애 대응으로 인해 소리 없이 상쇄되어 버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측정 가능한 결과를 얻으려면 팀은 운영 환경 텔레메트리와 개발 간의 피드백 루프를 닫아, 속도가 비용이 많이 드는 운영 중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보고서 소개

이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는 뉴렐릭이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리서치(ETR)와 파트너십을 맺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출되었으며, 2,575명의 IT 및 엔지니어링 리더와 실무자의 응답을 반영합니다. 보완 데이터는 2026년 뉴렐릭 AI 영향 보고서와 2026년 AI 코딩 현황 보고서를 참조했습니다. 2025년의 연간 7,600만 달러의 장애 비용은 전년도 오피서빌리티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업계 전반의 장애 비용 수치는 본문에 인용된 서드파티 출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ETR 소개

ETR은 IT 시장 조사 기관으로 타깃화된 IT 의사 결정권자(ITDM) 커뮤니티에서 확보한 독점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산 지출 의도와 업계 동향에 대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010년부터 ETR은 기업 연구에서 불완전하거나 편향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데이터로 형성되는 의견의 필요성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ETR의 ITDM 커뮤니티 업계 최고의 고객/평가자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지에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독점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통해 기관 투자자, 기술 기업 및 ITDM들은 확장되고 있는 시장에서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기술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뉴렐릭 소개

뉴렐릭은 기업이 AI 시대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신뢰와 확신을 제공합니다. 뉴렐릭의 지능형 오피서빌리티 플랫폼은 텔레메트리와 비즈니스 성과를 하나로 통합하는 업계 선도적인 AI 기반 플랫폼으로, 가장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텔리전스와 자동화된 조치를 제공합니다. 플랫폼은 개발 및 운영 팀이 사후 장애 대응에서 벗어나 지능적인 오케스트레이션 단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로 실행되는 자동화를 통해 기술 비용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수익을 실시간으로 보호합니다. 아디다스 런타스틱(Adidas Runtastic), 도미노 피자(Domino's), 라이언에어(Ryanair), 스위기(Swiggy), 탑골프(Topgolf), 윌리엄 힐(William Hill)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뉴렐릭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2026, New Relic, Inc.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등록상표, 상품명, 서비스 마크 및 로고는
각 해당 기업의 재산입니다. 09.2026

뉴렐릭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보기